

BOOK REVIEW

# 서 평

한국의 풍수사상

# 한국의 풍수사상

*Korean Poongsoo Thought*

최창조 저, 민음사, 1984.

박영희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셨다.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축복의 선물이다. 오랜 세월 인류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땅을 이해하고, 숭배하고, 이용하며 살아왔다. 현대적인 의미의 지리학이란 학문이 생기기 이전부터 인간은 삶의 터전인 ‘땅’을 이해하고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축적했다. 우리 민족이 습득한 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응결되어 있는 것이 풍수사상(風水思想)이다.

풍수사상이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 기층적 관념이었다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풍수사상이 현재에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풍수’ 하면 흔히들 산소자리 잡는 일이나 집터 잡는 일을 떠올린다. 명당에 조상의 묘자리를 쓰면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식의 기복적인 풍수설은 전국토의 요소 요소를 묘터로 만들었다. 이런 형편이고 보니 풍수를 맹신하여 좋은 묘자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부류가 있는가 하면, 풍수를 무조건 한국의 미신으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부류가 생겨났다. 온갖 종류의 출처가 불분명한 풍수서는 넘쳐 났지만, 풍수사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풍수사상」은 ‘맹신’과 ‘미신’ 사이에서 잡술(雜術)로 전락한 풍수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1984년에 출간되었다. 본

서는 지리학자가 철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풍수지리설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저작이다. 본서가 출간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풍수사상을 현대 지리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저자의 시도는 풍수사상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서는 기복신앙적이고 천박한 풍수인식을 바로잡고, 풍수를 현대 지리학과 연관시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자는 풍수사상이 가진 사상적 기반과 원리를 규명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풍수가 도읍과 취락 형성에 어떤 작용을 했는가를 밝혀 풍수사상을 일종의 ‘전통 지리학’으로 정립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과연 풍수사상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학계의 의구심은 아직도 논쟁거리이다. 급기야 저자는 5년전 벌어진 풍수논쟁 때문에 ‘지리학계의 이단자’로 몰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단을 떠났지만 활발한 저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본서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입각해서 형성된 풍수설을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현대의 우리 삶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 풍수설이 기반하고 있는 동양적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풍수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살피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도 있다. 기존의 서구적 지리학이 땅을 생명체로 여기기보다는 무생물로 취급하고 실증적인 연구에 치중한 것에 비해 풍수설은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 생기를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풍수설은 ‘신토불이’(身土不二), 인간과 땅의 바른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책은 전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에서는 현대 지리학의 이론이 우리와는 다른 자연관과 토지관을 가진 구미의 지리이론에 경도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리학의 최초·최종의 대상은 땅인데, 다른 땅에서 만들어진 이론은 한반도라는 특이한 공간의 땅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서구 이론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전래의 풍수사상이며, 풍수사상이 우리 민족의 자연에 대한 경험을 모아놓은 ‘지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2장은 풍수에서 사용되는 특이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풍수설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있다. 저자는 풍수지리설이 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說)을 기반으로 주역(周易)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이며, 추길파흉(追吉避凶)을 목적으로 하는 상지기술학(相地技術學)이라고 정의한다. 비록 풍수지리설이 효의 관념이나 사머니즘과 결합하여 이기적인 속신(俗信)으로 변질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토지관이라고 이해한다. 풍수설은 중국에서 발생하여 그곳에서 이론의 확립을 본 뒤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만 다른 지역의 지리적 사고와는 매우 다른 본질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풍수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주거 선정이나 취락입지의 방법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영면(永眠)의 장소를 찾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문화현상’이며, 동양인의 사생관이나 영혼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풍수설이 구체적인 이론체계를 갖게 된 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대체로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에 와서 풍수적 관념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고 본다. 한(漢)대에 이르러서는 특히 음양설이 도입되어 완전한 풍수원리가 정돈되고, 풍수의 경전인 청오경(靑烏經)이 편찬되어진다. 남북조시대에 와서는 궁택(宮宅)에 대하여 음택(陰宅)의 이론이 붙게 된다. 따라서 풍수설은 주거와 취락을 주로 다루는 양기풍수(陽基風水)가 먼저이고 그 뒤에 음택풍수(陰宅風水)라는 묘지상점(墓地相占)의 방법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풍수사상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삼국시대에는 아직 그러한 술법과 사상을 받아들인 형적이 없다. 풍수사상의 전래는 신라 통일 이후 당과의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던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한국 풍수사상의 전설적인 원조는 옥룡자(玉龍子) 도선(道詵, 827-898 A.D.)을 꼽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풍수설이 도입되었다고 본다. 도선이 중국의 승려 일행(一行)에게 직접 풍수설을 전수받았다는 것은 낭설이며, 신비한 이인(異人)이라고 칭하여진 신라인에게 풍수설을 습득했다고 본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풍수설 그리고 도참사상이 주도적인 사상 경향이었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초기 전도(奠道) 및 주산(主山) 결정 문제로 세종조까지 분분한 풍수논의가 있었으나 그후 일부 유신들 사이에 강력한 풍수배척론이 등장하고 풍수설은 민간신앙화하여 일반 민간에서 장묘에 치중하는 술법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후 명당, 명혈, 길지를 찾아 부모를 묻어 부귀영달의 길을 찾는 이기적인 방법이 팽배하여 폐단이 발생하자 실학자들은 풍수부정론을 펴며 풍수설의 허망함과 근거없음을 설파했다. 그러나 저자는 풍수부정론의 대부분이 풍수논리체계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비난이 아니라 그로 인한 관습, 제도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3장은 풍수설의 원리와 사상적 기초를 정리했다. 풍수의 목적은 땅속에 흘러 다니는 생기에 감응받음으로써 피흉발복(避凶發福)할 수 있는 진혈(眞穴)을 찾는 데 있다. 풍수설의 기본원리는 이와 같은 진혈을 찾아내는 과정과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그 내재된 원리는 음양오행설과 하도(河圖), 낙서(洛書), 방원(方圓)의 이치에 역(易)의 팔괘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표출된 땅의 선택은 내재원리를 바탕으로 山川을 목력재정(目力裁定)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풍수설의 구성은 산(山), 수(水), 방위(方位), 사람 등 4자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용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 등의 형식논리를 갖는다. 생기가 취주(聚注)한 진혈(眞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진용(眞龍)을 찾아야 하는데, 진룡의 출발은 곤륜산이다. 곤륜산은 천지를 진호하는 거물(鉅物)이며 이에서 흘러나온 용맥(龍脈)은 마치 사람의 목뼈-등뼈-다리뼈로 이어지

는 중심뼈대와 같아서 그에 연결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연면히 이어져 혈장(穴場)까지 닿게 된다. 이 용맥의 흐름을 찾는 방법을 간용법이라 한다. 용(龍)은 혈처(穴處)에 오게 되면 사성(砂城)이란 이름으로 혈의 주위를 둘러싸 장풍(藏風)을 하는 형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장풍법이라 하고, 역시 생기의 취지(聚止)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을 요구케 되는데 이는 득수법이라 하여 중시한다. 사성에 둘러싸인 명당을 구했다 하더라도 혈처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치의 차이로 혈의 진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정혈법, 혹은 점혈법(占穴法), 점정(占定)이라 칭한다. 그리고 양택의 경우 주건물이 놓이는 위치, 음택의 경우 시신을 눕히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을 좌향론이라 한다. 결국 풍수설의 원리는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론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사성의 형세를 인신(人身)이나 금수(禽獸)의 모양에 유감(類感)시켜 발복(發福)의 종류를 결정케 되는데, 이를 형국론이라 한다. 풍수서에 따라서 이상 여섯 가지 형식 논리 중 어느 한두 가지를 중시하여 그것을 중점적으로 풍수내용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자는 풍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모두 분석했다.

4장은 풍수지리설이 실제로 한반도라는 지표공간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오늘날 항간에 알려진 묘지상점을 목적으로 하는 음택풍수가 풍수의 본령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며, 주로 국도(國都)와 도읍의 기지 선정 및 공간배치에 나타난 양기풍수를 고찰하고 음택풍수의 공간분석은 초보적인 서술만 하였다. 여말 선초의 국가 수부 정도과정에서 벌어진 왕과 제신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거기에 내포된 풍수지리적인 논점을 추출하여 가장 중시된 4개지역 즉 개경, 한양, 모악, 계룡산의 구체적인 지리학 적 입지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풍수의 본질론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풍수지리설의 공간현상적인 현실감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혔다.

개경은 풍수이론상 대표적인 장풍국(藏風局)의 형태를 갖고 있다. 승풍(乘風)하지 않고 장풍하는 지세는 산에 둘러싸여 사신사(四神砂)를 갖춘 도읍이다. 하지만 개경 주변의 산세가 너무도 조밀하고 국면이 관광(寬廣)치

못하고 북산(北山)과 여러 계곡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모두 중앙에 모이기 때문에 여름 강우기에는 수세가 거칠고 순조롭지 못한 결점이 있다. 이러한 수덕(水德)을 진압하고 지덕(地德)을 비보(裨補)하기 위해 제수(諸水)의 합류점에 광명사와 일월사, 개국사를 건설하였는데 이것을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 초 전도(貞都) 과정에서 한양(漢陽)과 모악(母岳)이 양자택일적으로 거론되었다. 풍수적으로 한양은 산취수곡(山聚水曲)의 최선(最善)·유정(有情)의 땅인데 비해 모악은 명당이 좁고 후산(後山)이 낮아 입지조건이 불리하다. 신도선택(新都選擇) 논쟁을 통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에서 한양으로 결정이 되지만 그 논거를 삼았던 이론은 풍수사상이다. 도읍풍수(都邑風水)의 경우, 현실지형의 입지적 제조건을 참작하여 풍수이론을 적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계통산은 조선 초 도읍 물망에 오르지만 개경, 한양, 모악에 비해 입지 조건이 나빠 제신들이 반대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설과 도참적 해석이 결합하여 아직까지도 길지(吉地)의 대명사로 꼽히는 곳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장은 양기풍수(陽基風水)와 양택풍수(陽宅風水)의 개념을 정리하고, 풍수가 취락입지에 미친 영향을 살펴 산수상보(山水相補)가 취락입지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분석했다. 대부분의 경우 도읍이나 군현(郡縣) 등 취락풍수에는 양기(陽基)를 사용했고, 개인의 주택에 있어서는 양택(陽宅)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자는 취락의 기지에는 양기를, 주택의 경우에는 양택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어떤 경우이든 양기는 한번 결정되어 정지(定地)가 되면 옮겨가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지기(地氣)의 쇠운을 방지할 수 있는 비보설이 등장한다. 저자는 대부분의 풍수서에는 비보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는데도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래 신비한 힘에 의지하여 지덕(地德)을 비보하는 일이 있어서, 비보설을 한국풍수의 독특한 특색으로 파악하고 있다.

6장은 풍수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참서(圖讖書)로 알려진 정

감록(鑑錄) 감결(鑑訣)과 갖중 비기류(秘記類)에 담긴 우리 민족의 토지관 내지는 지이관을 추출하여 풍수지리설로부터 연원된 것임을 밝혔다. 십승지지(十勝之地)는 피난, 보신이라는 도참적 민속신앙을 사고의 기저로 하여 나타난 그들 신봉자의 토지관이기 때문에 공통된 지리적 특색을 갖고 있다. 도참서류상에 나타난 신봉자들의 토지관을 추출하고, 십승지지의 지세적 특징에 엿보이는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피란·보신지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도참서류에 나타난 토지관은 지기쇠왕(地氣衰旺)의 사상, 왕도회귀(王都回歸)의 사상, 풍수지리 사상, 피난·보신의 사상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사상들이 동시대에 기원하여 민중에게 전승되어 정감록 등에 기재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조선조 후기에는 향간에 널리 유포되었다. 도참서류의 기본은 양기풍수(陽基風水) 사상이며, 그 현실적 대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병화(兵火)와 흉년이 없는 피란·보신의 땅, 즉 십승지지이다. 국도풍수(國都風水)에 대한 사고가 지배계급의 의식이었다면 피란·보신의 사상은 오랜동안 병화와 흉년에 시달려 온 민중의 토지관이었다. 피란·보신의 사상적 연원은 도교이며, 민중에 확산된 것이 조선말 및 일제의 혼란 기이지만 선초의 계룡전도(鷄龍奠都) 논의에서 드러나듯 오랜 역사를 이어 온 것이다. 풍수지리서에서 최대 길지로 꼽히는 대소백간(大小白間)의 영월 상동, 단양영춘, 영주풍기 등 세 곳을 분석하여 십승지지의 일반적인 모형을 추출하였다. 그것은 “대산맥계(大山脈系)가 하나 혹은 가급적 두 개가 인근에 접해 있는, 3면이 급경면에 둘러싸이고 나머지 한 면은 bottle-neck의 좁은 통로로 도읍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하천을 보유한, 전략적 가치가 희소한 협곡내의 지역”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양기풍수원리에는 대체로 어긋나 있고, 풍수금기를 범하고 있으며 합리성 있는 취락입지로서도 매우 불리한 곳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도참서의 토지관은 대체로 인위적, 계획적, 모책적,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신의적(神意的), 자연적, 천연적, 소극적인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7장은 우리 민족이 장구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살아서 또는 죽어서까지



가기를 원했던 길지 내지는 명당의 환경과 풍토를 밝히기 위해 동서양 이상향을 비교하여 정리했다. 모든 유토피아가 좋은 땅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는 것은 유토피아를 믿음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양의 유토피아는 고립성, 자연성, 조화성으로 요약되는데, 땅이나 경관 자체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미미한 편이고 그 내용도 유치하다. 이것은 서양의 유토피아가 이상의 땅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상향 즉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 것에 기인한다. 그래서 유토피아의 묘사가 주로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신과의 관계 등 초자연적인 내용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동양적인 이상의 땅, 풍수 도참적인 명당·길지는 설이 구구하고 표현이 난해하고 산만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경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양의 유토피아가 일종의 환상이라면, 동양의 풍수적 길지는 그것이 구체적인 실체로서 이 지상에 존재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온화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결함이 없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주위 환경, 각이 지지 않는 방위와 유장한 산의 흐름, 찌르듯 달려들지 않는 물길, 그러나 변화무쌍하여 결코 단조롭지 않은 산수의 배열, 이러한 조화를 이룬 자연에 적덕(積德)한 사람들의 영원한 거소(居所), 이것이 풍수적 이상의 땅, 길지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본서는 한국의 풍수사상에 대한 원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풍수사상이 미신이나 잡술이 아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지리관이라는 것을 해명하여, 풍수사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풍수사상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현재의 실증주의적 지리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주의적 지리학의 한 분야로 보는 시각은 기존의 풍수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또 일반인들의 관심이 주로 묘자리를 잡는 음택풍수(陰宅風水)에 국한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읍이나 마을의 터잡기인 양기풍수(陽基風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풍수에 대한 편파적인 이해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풍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풍수적인 터잡기가 신비주의가 아닌 현대 지리학의 관점에서도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관이라는 점을 분석해 내었다. 그러나 저자는 풍수설에서 일반인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친자감응’(親子感應)을 속신으로 배격하고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풍수가 지닌 신비주의적 요소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풍수설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친자감응’이다. 조상의 묘자리를 잘 쓰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친자감응설은 동양적 사생관을 바탕으로 한 이기적인 속신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자감응설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풍수를 신비적인 술법으로 오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철저한 규명과 비판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저자의 연구는 풍수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길지(吉地)가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고 있다. 서양의 유토피아가 주로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를 꿈꾸는 것에 비해 우리의 이상향은 구체적인 지형 조건을 가진 국소적인 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이상향이 결코 현실을 벗어난 환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이 세상 어딘가에 복받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존재한다고 믿는 현세적 의식은 풍수설을 이끌어 온 중요한 동인이었다. 이처럼 풍수사상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풍수사상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우리 민족의 다양한 정신세계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풍수설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사상은 인간과 자연을 일체로 간주하여 조화의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배치되는 사상이다. 음양오행사상은 동양의 우주론인 동시에 존재론으로, 천(天) 지(地), 인(人)의

3재를 하나의 기(氣)로 통섭시키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집을 짓거나 또는 취락이나 도읍을 건설할 때 음양오행이라는 관념적 질서, 즉 우주적 질서를 공간상에 그대로 투영시키려 한다. 나아가 죽은 자의 생년 월, 일, 시 사주(四柱)에도 적용되는 시간적인 질서이기도 하다. 천지와 시간을 주관하는 것은 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풍수사상은 그 현대적 해석과 합리성의 규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수용이 아닌, 전통사상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박영희 ■

서울 출생. 이화여대 국문과와 동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재 이화여대 강사.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대의원. 서울 영동교회 출석. 기독교 관련 연구 논저로 「한국 고전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서편제」(공저) 외 다수 논문